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



김왕복

교육감 직선제 유지 여부의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선거에서 나를 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하자.

다음달 2일은 시·도지사과 교육감 등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등 이미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만의 문제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어 '로보 선거'라는 비유가 나온다.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그 이유는 뭘까?

#1.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6일 정당-교육감 간의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정당의 교육감 선거권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특정 교육감 후보가 자기 당과 정책적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최대한 연대효과를 노리려 하고 있다.

#2. 대통령이 지난달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교육계 비리 문제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정부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 선출 제도에서 지금의 국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제도 변경의 빌미로 제공한 것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담합과 비리였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교육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직선제인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교육감 직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위의 장면들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교육감 선거제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검토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정책에는 정치적 사안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정치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안들을 결정할 때도 정치적 편견이나 이념적 성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불편부당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마저 중앙정치에 예측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방교육자치의 선행 기본조건이다. 6·2 지방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훌륭한 교육감을 뽑을 수 있을까?

우선 교육감 후보 기호는 정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투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지역의 유력 정당 시·도지사 후보와 같은 기호의 후보자가 약 15% 정도의 득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 서울 지역 후보는 특정 번호를 뽑자 '한판승 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 후보자의 정당 연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후보자 기호를 정당 순도 가나다순도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특히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제일 먼저 투표하도록 하였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둘째,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살펴보고 투표하자. 선거 공보에 나오는 공약 중에서 최소한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여 지지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무상급식 확대, 보육정책, 자율형 고등학교 확대 정책, 또는 교원평가제 도입 등은 후보자 선정의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 여부의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선거에서 나를 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하자.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천안함 北 도발, 단호하되 냉정히 대응해야

민·군(民軍)합동조사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백령도 해저에서 수거한 어뢰 부품들과 표기 방법이 북한과 동일하다는 등 구체적인 과학적인 여러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은 폭력적 야만성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 따라서 국가 안위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과 응징은 불가피하다. 도발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또 다른 도발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사적 대응만큼은 신중해야 한다. 보복 선제공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단호하지만 절제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북한의 적반하장적인 위협에 결코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포퓰리즘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격양시

키는 무책임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이다. 민심이 뒤틀림에 단호한 대응도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방위적 외교력을 동원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굳건히 해야 한다. 특히 미·일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도 시급하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다. 정치권은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북풍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특히 이번 북한의 도발이 안보 무능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가 처해 있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일깨워 줬다. 모두가 결연한 각오로 국가안보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금남상가 붕괴사고

19일 오후 발생한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는 지역민들의 가슴을 찡그러게 했다. 금남지하상가 기반이 무너져 내려 각탑 3개 중 한개가 기울고 지하 주차장과 일부 상가로 토사가 쏟아져내렸다. 사고가 난 금남지하상가는 소규모 물과 극장이 밀집된 층상구조와 연결돼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5·18 30주년 기념 행사 기간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인재(人災)로 미리 대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지하상가 점포 물과 극장이 밀집된 층상구조와 연결돼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5·18 30주년 기념 행사 기간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런 사고 역시 예견된 인재(人災)로 미리 대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지하상가 점포 물과 극장이 밀집된 층상구조와 연결돼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5·18 30주년 기념 행사 기간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런 사고 역시 예견된 인재(人災)로 미리 대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지하상가 점포 물과 극장이 밀집된 층상구조와 연결돼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5·18 30주년 기념 행사 기간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공사 관계자와 관계 당국의 무심경한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이같은 안전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은 이번 사고원인을 슬레브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때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남지하상가와 옛 도청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불가피하다. 객관 소재 역시 철저히 따져야 한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5·18 30주년 기념행사가 차질을 빚고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서석로 폐쇄에 붕괴사고까지 겹치면서 금남지하상가 상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無等鼓

"우리 팀이 최고의 까닭은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어느 팀보다도 의사소통이 잘되고 승패를 떠나 다음 단계를 대비하는 정신적인 준비가 잘 돼있다. 그것은 우리만의 전통이다."

매뉴 박지성의 말이다. 그는 그 전통을 '워닝 멘탈리티'라고 부른다고 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이기는 경험의 공유'라고 말할 수 있겠다.

축구라는 경기가 그렇다. 스타플레이어 한 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FIFA 랭킹 100위권 밖의 나라가 10위권 내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게 축구다. 그래서 공은 동글다고 하지 않던가. 현대축구는 개개인의 화려한 기술보다는 팀의 전략과 전술에 방점을 둔다. 그래서 모든 팀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팀 정신이다.

명장 퍼거슨이 지휘하는 맨유를 보면 그 흐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지난 시즌 무회전 킥과 현란한 개인기로 EPL(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호날두를 레알 마드리드에 내주고도

올해 맨유는 '워닝 멘탈리티'와 특유의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파죽지세를 몰아갔다. 막판 첼시가 우승을 넘겨주긴 했으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호날두의 공백은 없었다. 왜 맨유가 강팀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한 시즌이었다.

드디어 20여 일후엔 남아공 월드컵이 열린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예비멘트리를 봤을 때 신·구의 조화가 돋보인다. 박지성을 주축으로 한 이영표·이운재 등 2002년의 멤버들과 이청용·기성용 등 신예가 활극분할을 이루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의 전술·전략보다는 강인한 팀정신을 다질 때

다. 박지성을 주축으로 한 이영표·이운재 등 2002년의 멤버들과 이청용·기성용 등 신예가 활극분할을 이루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의 전술·전략보다는 강인한 팀정신을 다질 때

다. 박지성을 주축으로 한 이영표·이운재 등 2002년의 멤버들과 이청용·기성용 등 신예가 활극분할을 이루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의 전술·전략보다는 강인한 팀정신을 다질 때

워닝 멘탈리티



맨유가 '이기는 경험의 공유'하듯 우리 태극전사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유해주길 바란다. 종료 후술이 올릴 때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는 선수가 없도록 승리의 에너지 불어넣어 달라. '원정 16강 아니, 원정 4강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주문을 걸어보자. /김일환 여론채무장 kih8@kwangju.co.kr

중고칼럼

법선 스님



쓸쓸하던 무등산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무등산이 푸르러 지는 것과 가리거리 마다 걸려 있는 연등을 보면 다시 부처님이 오신 날임을 안다. 다시 맞이한 부처님 오신 날, 분명 봉축해야 할 일임에도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있는 요즘의 기분은 잔뜩 찌푸리고 있는 하늘 탓만은 아닐 것이다.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천안함 의혹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의 제방에서는 인간이 소외된

리고 진리를 향하는 참된 가치에 의지하기를 갈파하셨으며,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적 화합을 주장하셨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참 생명의 해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통(역사 사회 속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 주셨다.

그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참 생명의 해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파생된 계급문제, 여기에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기고

음두호



하루 24시간 중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5분 동안 50만 눈을 깜박이고 75번의 호흡, 약 30조번의 명령을 뇌에서 처리한다. 소방관의 입장에서 5분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화재진압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긴박한 시간이다.

물에 빠져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 등 호흡이 중단된 환자에게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호흡이 정지된 사람은 산소공급이 4~6분 정도 중단된 후부터 뇌가 손상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하는 것은 이례서 중요하다. 하지만, 소방차량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소방관서와 원거리일 경우는 차차하고라도 교통정체, 불법주정차, 골목길 양방향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사이렌과 비상방송, 휴대전화 통화를 번갈아 하며 길이 트이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는 전국의 소방차와 구급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소방차량의 통

생명을 구하는 시간 5분

을 입기 시작한다. 10분 정도가 경과하면 뇌는 100% 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진다. 5분 이내에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소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기 5분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화재의 경우도 화재가 발생한 직후 3~4분 안에 산소농도가 평소의 18%에서 절반이 안 되는 7%로 떨어진다. 이 정도의 농도에서는 사람이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5분 안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조그만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 5분이 경과하면 실재를 연기와 화염으로 가득 차게 한 후 플래시오버(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류와 복사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서 급격히 타오르는 현상) 상태가 되어 창 밖으로 화염이 분출하는 최상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때가 지나게 되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2차 연소 확대로 인해 인근 건물까지 불이 번져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카메라에 찍혀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방법은 편도 2차로이면 1차로를, 편도 3차로 이상이면 2차로를 소방차가 지날 갈 수 있게 좌우로 비켜주면 된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국민이나 공무원에게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434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10%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3월 6일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피해의 저감은 소방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소방차길 터주자,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 성숙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시민의 마땅한 의무이다.

(여수소방서장)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정부가 나서야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농어촌 주택, 창고, 외양간 등의 초기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함으로써 산뜻하고, 화재를 방지하며, 빗집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4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슬레이트 수명이 다 되어 비가 새고, 다른 건축 자재로 교체하고 있으며 낡은 주

택은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하는 능가자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슬레이트 제조 과정에서 석면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한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생활하는 농어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암 유발 원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농어민들의 피부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정체를 폐주기 바란다. ▲심원선·광주시 북구 문흥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